

동시대를 기록한다는 것의 가치 이탈리아 국립 21세기 뮤지엄(MAXXI)

김종범 · 김미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Museo와 싱크탱크

MAXXI를 소개하기 전에 기관의 명칭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 XXI Secolo’를 적절히 번역할 필요성을 느꼈다. MAXXI는 국내 기관지 등을 통해 ‘21세기 국립 로마 현대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역할은 ‘미술관’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21세기 들어 미술관이 눈에 띄게 도약했지만 뮤지엄(Museum)**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Museo’의 정의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광의적이다. MAXXI는 ‘광대한 문화 캠퍼스(un grande campus per la cultura)’를 목표로 2009년에 설립되었다. 예술과 건축을 주제로 워크숍, 컨퍼런스, 쇼, 프로젝트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MAXXI는 미술관의 정통적 기능인 전시와 소장 외에도 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실험실 기능을 겸한다. 이를 위한 연구와 조사, 예술 생산 활동은 MAXXI의 근간을 이룬다.*** 기관명에 담긴 ‘21세기’는 전시와 아카이브의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지만, 동시대의 역사를 쌓는 데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뮤지엄의 시대정신을 상징한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MAXXI는 미술관이기 이전에 뮤지엄이고, 동시대 예술과 건축을 통하여 시대의 비전을 만드는 싱크탱크로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뮤지엄으로서의 MAXXI를 소개하고자 한다.

* 국립극장이 발간하는 월간 <미르> 2018년 6월호에는 이현정의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예술: MAXXI 21세기 국립 로마 현대 미술관’이 실렸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2월, 국립현대미술관은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뉴미디어아트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 The Future is Now!’를 개최하며, MAXXI를 ‘로마의 국립 21세기 현대 미술관’으로 소개하였다.

** 뮤지엄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서상우 2005, p.3).

*** MAXXI. La Fondazione. <https://www.maxxi.art/chisiamo/>



MAXXI 내부



Rintala Eggertsson Architects의 'Home sweet Rome'('At Home' 전, 2019)

건축가 Rintala Eggertsson의 2010년도 작업을
2019년에 DomusGaia Bioedilizia와 협업하여
MAXXI 공간에 맞도록 1:1 축척 모델로 재현

‘호랑이의 도약(Tigersprung)’, MAXXI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의 <래디컬 뮤지엄>에는 ‘호랑이의 도약(Tigerspru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호랑이의 도약’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제안한 개념으로, 과거를 소환함으로써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오늘날 뮤지엄의 숙명과도 같다. 클레어 비숍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뮤지엄이 방문객으로 하여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을 주문한다.** 뮤지엄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비단 비숍 한 학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2013년 UNESCO는 “뮤지엄은 교육, 유산보존, 국민인식 증진, 정보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9년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3 박물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서 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설정한바 있다.

MAXXI는 동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생산하는 작업이 현재와 미래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MAXXI는 지난 20세기와 앞으로 쌓여갈 21세기를 기관이 담아야 할 시대로 정했고, 가까운 과거와 현재의 건축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고 있다. MAXXI는 멀어져 버린 과거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기록해서 이곳을 찾는 우리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연구자, 학생, 건축가, 이 시대의 평범한 시민 모두를 말한다.

MAXXI 컬렉션: MAXXI Arte와 MAXXI Architettura

MAXXI가 추구하는 기능과 그간 추진했던 프로젝트는 싱크탱크로서 뮤지엄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MAXXI 컬렉션은 MAXXI가 건축 분야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XXI 컬렉션은 예술분과(MAXXI Arte)와 건축분과(MAXXI Architettura)로 나누어진다.

MAXXI Arte

MAXXI Arte는 예술 분야와 전시를 담당한다. MAXXI Arte의 핵심은 건축물 자체에 있다. MAXXI는 1998년 이탈리아 문화예술부(Ministry for Cultural Heritage)가 개최한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하였다.**** MAXXI의 공간감은 관람객에게 독특한 공간적 체험(Museographic experience)을 제공한다. MAXXI의 건축 전시는 이곳의 공간에 특화된 프로젝트(Site-specific project)로 기획되고 있으며, MAXXI는 작가와 건축가에게 다양한 실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 클레어 비숍(2016, p.104)

** 클레어 비숍(2016, p.98)

*** UNESCO(2013)

**** MAXXI. The Museum. <https://www.maxxi.art/en/progetto-architettonico-new-2/>



MAXXI 건축분과 Pier Luigi Nervi 컬렉션 인벤토리(L'archivio Pier Luigi Nervi nelle collezioni del Maxxi Architettura [Inventario])



MAXXI 인벤토리(Inventari), MAXXI가 소유한 건축 컬렉션에 대한 해제와 초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
출처: <http://inventari.maxxi.art/>

MAXXI Architettura

이 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독립된 전문 부서로 입지를 다진 MAXXI Architettura (이하 MAXXI 건축분과)이다. 2013년 디렉터 마르게리타 구치오네(Margherita Guccione)는 이탈리아 뮤지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 전문 부서를 설립하였다. MAXXI 건축분과는 건축 아카이브와 컬렉션 구축, 연구를 담당한다.

1999년 이탈리아 문화유산활동관광부의 현대예술·건축국(Direzione Generale per l'Architettura e l'Arte Contemporanee: DARC)은 '현대예술 진흥계획(Plan for Contemporary Art)'에 따른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상당한 양의 건축 자료를 매입, 컬렉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MAXXI는 2009년 정식 개관에 앞서 2002년부터 소장품 목록과 카탈로그 등 보유 컬렉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정리된 아카이브는 전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도 한다. 아카이브 정리와 분석 작업은 MAXXI 건립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MAXXI는 고전적 뮤지엄에서처럼 건축 아카이브를 수장고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컬렉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MAXXI 건축분과의 활동은 소통의 중심지(Communication Hub)를 지향하는 MAXXI의 비전을 잘 보여준다.**

아카이브 센터의 노트북(Quaderni del Centro Archivi)

MAXXI의 대표 아카이브 중 하나인 이탈리아 건축가 카를로 스카르파(Carlo Scarpa)와 알도 로시(Aldo Rossi) 아카이브는 소장품의 해제를 통해 동시에 건축가가 추구한 미래와 이를 재현하는 작업 방법론을 보여준다. 세계의 몇몇 건축 박물관에서 유사한 작업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MAXXI가 새삼 싱크탱크로 주목받는 이유는 MAXXI 건축분과 아카이브 센터가 '전시'라는 매체를 통해 20~21세기의 건축물과 건축가를 재조명하고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기 때문이다.

MAXXI 건축분과 아카이브 센터가 발간하는 '아카이브 센터의 노트북(Quaderni del Centro Archivi)'은 MAXXI가 사회와 호흡하는 방법을 잘 보여준다. 이 연작은 소장 아카이브 연구를 바탕으로 MAXXI Arte와 협업하여 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도록이다. 책은 전시 주제 선정 이유, 전시 대상의 역사적 기록, 전시된 아카이브와 매체들, 평가와 비평, 전시 디자인, MAXXI가 소유한 전시 관련 아카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도입부의 "왜 전시하는가?(Why an exhibition about-)"이다. 20세기와 21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임을 표방한 MAXXI의 연구 대상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여느 박물관과 같이 전시 대상의 일대기나 거대한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

도입부에는 건축가가 동시대 건축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한 명의 개인으로서 투철했던 작업의 기록, 일상 공간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와 같이 누구와도 소통 가능한 언어와 주제로 아카이브를 해제하고 전시하는

* Valente(2015, p.255)

** MAXXI. Mission. <https://www.maxxi.art/en/mission/>



아카이브 센터의 노트북(Quaderni del Centro Archivi)



'PROJECT AND UTOPIA' 전시와 연계하여 건축가 Paolo Soleri의 Space IV의 홍보공간으로 활용 중인 모습(2019.11~2019.12)

의의가 기술된다. MAXXI 건축분과는 전문가뿐 아니라, 뮤지엄을 찾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동시대 건축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한다.

Sala Studio

MAXXI 건축분과는 아카이브를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건축 연구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MAXXI 재단은 2010년부터 기부금과 예산을 투자하여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한 아카이브 센터가 건축 컬렉션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한편 센터에 설치된 Sala Studio는 소장된 도면, 문서, 모형 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 매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인도 접근하기 쉽게 전시장 한 편에 위치하고 있다. 'Sala'는 이탈리아어로 '응접실(Salon)'을 뜻하는데, Sala Studio는 MAXXI의 아카이브를 개방하는 창구이자 방문객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며 실험적인 워크숍 장소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박물관 기능인 보존·복원·컬렉션 영역을 넘어서 연구와 실험, 홍보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Sala Studio는 뮤지엄에 쌓여가는 지식 범용(汎用)의 변천사에 변곡점을 제공한다. 19세기 중반, 뮤지엄에서 지식의 생산은 진기한 것을 모으는 방(House of Curiosities)에서 출발하였다. 특별한 컬렉션이 특수 계층의 관람객을 매혹시킨 시절이 있었으나,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의 뮤지엄에서는 대중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MAXXI는 일반 관람객이 자유롭게 전시 콘텐츠와 아카이브에 접근하도록 하고, 출판과 다양한 건축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 주체적으로 문화활동을 조직하고 가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제는 뮤지엄의 제한된 공간에 담긴 고정된 지식을 뛰어넘어, 뮤지엄이 보유한 지식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 새로운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다원적 시대에 이르렀다. Sala Studio는 MAXXI가 시민과 함께 현대사회 속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MAXXI 아카이브 센터와 Sala Studio는 학생, 연구자, 전문가 그리고 건축에 순수한 열정을 지닌 일반 시민이 아카이브에 접근하고,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관심 주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기록물의 보존, 설명, 접근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가장 혁신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건축 아카이브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하고, 새로운 분야의 전시와 소통을 실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도 MAXXI가 동시대를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 'art. 10 of Law no.137, 6 July, 2002'에 따른 '문화유산과 랜스케이프 코드를 포함한 D.Lgs. no.42, 22 January, 2004' 조문에 따라서 MAXXI 아카이브 자료는 유지, 보존, 정리, 목록화되고 있다.

** Marcus(2006, p.277)

*** MAXXI. Research. <https://www.maxxi.art/en/maxxi-b-a-s-e/>

**** MAXXI(2015, p.259)

MAXXI 건축분과 아카이브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자는 네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MAXXI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국외 건축 아카이브와 협업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박물관·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MAXXI 아카이브와 AAA/Italia(Associazione Nazionale Archivi Architettura Contemporanea)의 연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AA/Italia는 공공과 민간기관, 건축학자와 아카이브 관리자,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이탈리아 국립 건축 아카이브 협회이다. 현재 Sala Studio 방문객이 AAA/Italia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시각 자료(Virtual Heritage)를 열람할 수 있다. MAXXI가 보유한 약 6만 장의 도면, 7만 5,000장의 사진과 다수의 자료를 AAA/Italia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현실적으로 두 기관의 아카이브를 하나로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축 기록물을 함께 조사, 연구, 전시하고 건축 지식을 재생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가며

MAXXI 아카이브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카이브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MAXXI 아카이브가 갖는 동시대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독특한 전시공간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시 작품에 달린 작은 태그에서 그 가치는 쉽게 발견된다. MAXXI 아카이브는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되거나 재현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의 전시 태그에는 작품의 새로운 기초를 세운 건축가와 학자, 학생의 작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특정 작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MAXXI가 건축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동시대’가 갖는 시대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대의 예술과 문화는 ‘사회화’되기 위하여 뮤지엄과 같은 문화시설을 매개로 공공성을 표출한다.* 사회가 추구하는 동시대의 공공성은 기록의 축적과 공유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오늘날 MAXXI의 위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동시대를 기록하는 것의 가치는 수장고에 보존된 정제된 아카이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재해석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 짓기 위한 현재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발현되는 것임을 MAXXI는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1 서상우. (2005) 뮤지엄건축, 도시 속의 박물관과 미술관, 살림.
- 2 클레이 비숍. (2016). 래디컬 뮤지엄. 현실문화연구.
- 3 Marcus, T. (2006). 권력과 건축공간: 근대사회 성립 과정에 나타난 건축의 자유와 통제. 시공문화사.
- 4 MAXXI. (2015). SPECIALISED ACTIVITIES. MAXXI ARCHITETTURA CATALOGUE OF COLLECTION. MAXXI. Quodlibet.
- 5 UNESCO. (2013). UNESCO promotes the role of museums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ramework of the "UN" Join Programme.
- 6 Valente, E. (2015). HISTORY OF A COLLECTION. MAXXI ARCHITETTURA CATALOGUE OF COLLECTION. MAXXI. Quodlibet.
- 7 MAXXI 홈페이지. <https://www.maxxi.art>.

* 서상우(2005, p.3)

INTERVIEW



안젤라 파렌테(Angela Parente)
MAXXI 건축분과 아카이브 센터

Q MAXXI의 건축 아카이브 센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MAXXI의 건축 아카이브 센터는 MAXXI의 건축 컬렉션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Sala Studio를 통하여 대중에 공개하고 컬렉션의 확장과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20세기 및 21세기 컬렉션과 사진 컬렉션을 활용, 문서, 도면, 모형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전시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Sala Studio 내 MAXXI Research와 연계된 다양한 연구 활동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The Centro Archivi'라는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컬렉션의 재구축과 카탈로그 작업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AAA/Italia와의 네트워크로 이탈리아 건축과 도시계획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문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별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체계가 상이하여 하나로 통합되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연구 활동은 아카이브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MAXXI의 건축 아카이브를 통하여 추구하는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 MAXXI의 건축 아카이브는 완전한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미셸 발로리(Michele Valori)의 건축 자료만을 완전한 아카이브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MAXXI에서 발간한 <MAXXI ARCHITETURRA CATALOGUE OF COLLECTIONS>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건축가와 건축회사의 자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하 하디드, 이토 토요(伊東豊雄), UN Studio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건축가와 건축회사들의 아카이브도 일부 보유 중입니다. 이는 현시대의 건축 아카이브가 갖는 다원성을 통해 동시대 아카이브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아카이브를 단일 기관에서 모두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아카이브는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센터뿐만 아니라, MAXXI는 하나의 조직체로서 각 부서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동시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아카이브에 담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MOMA/MOMA PS1, 산티아고의 Constructo Association(2011-), 터키의 이스탄불 현대미술관(2013-),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2014-)과 함께 매년 MAXXI가 개최하는 YAP(Young Architects Program)를 통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을 발굴, 대중과 사회의 소통을 추구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브에 기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MAXXI의 건축 아카이브는 대중에게 MAXXI가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중적 건축 문화를 시민에게 전달,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